“작품은 열정의 산물… 별명이 ‘장다르크’예요”

컬쳐 & 피플

뮤지컬 연출가 장유정

여수출신…뮤지컬대상 3관왕에 극작가·영화감독까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개념과 개념이 부딪쳐야 생기죠”

지난해 뮤지컬 ‘그날들’로 한국뮤지컬대상 3관왕을 차지한 장유정 연출가. 그는 연출가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한계를 극복하고 열정적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서울=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연출한 뮤지컬마다 흥행에 성공하며 ‘뮤지컬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장유정 감독은 극작가이자 뮤지컬 연출가, 영화감독이기도 하다. 지난해 뮤지컬 ‘그날들’을 통해 더 뮤지컬 어워즈에서 올해의 창작뮤지컬상 등 3관왕, 한국뮤지컬대상 시상식에서 베스트 창작뮤지컬상 등 3관왕을 차지하며 다시 한 번 뮤지컬계 신화를 써내려간 장 감독을 최근 만나고 왔다.

뜨거운 햇살 때문에 불쾌지수가 상당하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지만 기자일행을 맞이하는 장 감독은 화사한 웃음을 잃지 않고 고향에서 올라온 취재진과의 인터뷰에 반갑게 응해줬다.

여수가 고향인 장 감독은 학창시절부터 연출가를 꿈 꿔 왔고 그 꿈을 향한 계단을 하나씩 밟아나갔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면서도 연극동아리 활동을 했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다시 입학해 본격적으로 연출공부를 시작했다.

“고교 시절부터 연극이 너무 좋았고 연극의 길을 가야 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배우의 길은 내 길이 아니라는 건 일찍이 깨달았죠.(웃음) 많은 분들이 연출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해 해요.무엇이든 한 가지의 계기만으로 시작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저 역시 몇 번의 터닝포인트가 있었어요. 중학생 시절 성당에서 가는 연합 야유회에서 고등학생쯤 되어보이는 남학생이 ‘품바’의 한 장면을 연기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에요. 지금도 많은 공연을 보러다니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장면이 기억날 정도로 뇌리에 각인돼 있어요. ‘아, 이런게 연극이구나’ 싶었지요.”

준비된 인재였던 걸까. 그녀는 한예종에 입학한 지 3년만인 2002년 뮤지컬 ‘송산야화’로 정식 데뷔하고 2006년에는 ‘오! 당신이 잠든 사이’로 한국뮤지컬대상에서 작가상과 최고작품상을 수상하며 뮤지컬계 신인 스타로 깜짝 등장했다.

“그때 제 나이가 만으로 29세였어요. 그냥 젊은 나이였던게 아니라 아직까지 그 나이에 큰 상을 받는 연출가는 없어요. 제가 잘했다는게 아니라 정말 운이 좋았던 거죠. 연출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배우와 좋은 스태프를 만났다는 점에서 다행이었어요. 대본을 아무리 잘 써도 배우들이 연기를 못한다거나 무대가 올려지는 극장이 이상하다면 불가능한거잖아요. 이 모든 결합된 구조들이 잘 만들어졌을때 훌륭한 작품이 나오는 거고, 그런 점에서 운이 좋았다는 겁니다.”

스스로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 하지만, 그는 다음 작품인 뮤지컬 ‘김종욱 찾기’와 ‘형제는 용감했다’로 잇달아 더 뮤지컬어워즈 작사상과 극본상을 석권하며 실력을 입증시켰다.

뮤지컬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드문 지역에서 장 감독은 영화 ‘김종욱 찾기’ 감독으로 더 많이 알려졌다. 동명의 뮤지컬이 흥행에 성공하며 영화로까지 만들어지게 됐다. 뮤지컬이 영화화 된 최초의 작품이었고, 뮤지컬 감독이 영화 메가폰까지 잡게 된 것도 최초였던 만큼 애착이 가는 작품이기도 하다.

장 감독이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는 누구보다 많은 노력이 뒤따랐고 일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연출가를 꿈꾸는 후배들에게도 ‘한계를 극복하고 스스로 찾아다니기’를 강조한다.

“벌써 이 일을 시작한 지도 12년이 넘었습니다. 늘 최선을 다하지만 무엇보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 데이터를 만들고 많은 노력을 해요. 배우를 한 명 뽑을 때도 신중하고, 대본 하나를 완성하는 데만도 2~3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무대 위 뿐 만 아니라 공연 관련 포스터를 하나하나 체크하는 등의 꼼꼼함도 그녀만의 장점이다.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자주 보여주지만 공연 연습때마다 객석 의자에 올라서 무대 전체를 지켜보는 모습은 ‘장다르크’라는 별명이 어울릴 정도로 당차고 야무지기까지 하다.

시간이 날때마다 공연과 영화도 자주 보러 다닌다. 하루에 세편의 영화를 연달아 본적이 있을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 연극과 뮤지컬 공연도 가리지 않고 찾아보는 편이다.

“인접장르에 대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해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개념과 개념이 부딪치면서 생기기 때문이에요. 뮤지컬 연출가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영화도 찍고 연극도 종종 합니다. 야외 퍼포먼스 공연도 하고 심지어 전국체전 개회식을 맡기도 했어요.”

지난해 그녀에게 많은 상을 안겨준 뮤지컬 ‘그날들’은 올해 재공연을 확정지었다. ‘그날들’은 故 김광석이 부른 노래로 만든 주크박스 뮤지컬로 오는 10월 서울 대학로뮤지컬센터 대극장에서 3개월간 공연될 예정이다.

/서울=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댄싱 9’과 舞鄕 광주

〈무향〉

개인적으로 요즘 즐겨보는 케이블 TV 프로그램이 있다. 매주 금요일 밤 11시에 방영하는 글로벌 댄스 서바이벌 오디션인 ‘댄싱9 시즌2’다. 지난해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 젊은 춤꾼들의 역동적인 에너지에 매료돼 챙겨보기 시작했다. 춤이라고 하면 발레, 현대무용, 비보잉, 댄스 스포츠 정도만 알았던 내게 ‘댄싱 9’은 다양한 춤의 세계에 눈을 뜨게 했다. 얼반 댄스, 왁킹, 클럼핑 등 이름도 생소한 춤의 향연들을 보고 있으면 일주일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다. 매주 심사위원들의 큐사인에 맞춰 값진 땀방울을 흘리며 열정을 불태우는 댄서들의 노력은 감동 그 자체다.

하지만, 기자에게 깊은 인상을 준 건 일부 여성 참가자들의 ‘눈물겨운’ 출사표였다. 빼어난 스펙을 자랑하는 발레리나와 현대무용가들의 고백은 화려한 무대 뒤에 감춰진 국내 무용계의 슬픈 현실을 되돌아 보게 했다. 엘리트 무용인이지만 썰렁한 객석을 마주할 때마다 자괴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춤의 대중화를 표방한 ‘댄싱 9’은 달콤한 제안이었다고 한다. “‘딴따라’ 들이나 나가는 프로그램에 뭐하러 출연하느냐”는 주변의 반대에도 이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두드린 이유는 단 하나, 대중들의 관심이었다.

이들의 간절함이 통했을까. 지난해 첫선을 보인 ‘댄싱 9’은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 일색인 방송가에 신드롬을 불러 일으켰다. ‘시즌1’의 성공으로 올해 다시 안방을 찾은 ‘시즌 2’는 지난 18일 방송된 6회 시청률이 자체 최고인 3.2%를 찍었다. 실제로 시청자들은 매주 방송이 끝난 후엔 SNS 등을 통해 “현대무용이 이렇게 매력적인 춤인 줄 몰랐다”, “발레는 따분할 줄로만 알았는 데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란 걸 알았다” 등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내며 폭발적인 관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춤의 대중화는 무향(舞鄕)인 광주에선 아직 요원한 것 같다. 조선대 무용학과와 더불어 미래 무용인들의 산실인 광주여대 무용학과가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는 사실상 폐과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에 따르면 정원 미달과 취업률 저조가 주된 이유라고 한다. 교육부가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을 기준으로 취업률을 평가하는 탓에 졸업생 상당수가 학원 강사(4 대보험 미가입)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취업특성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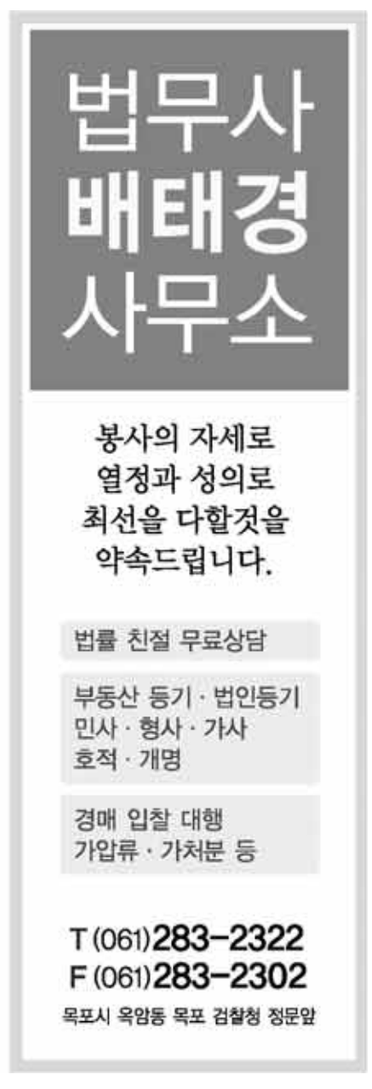
사정이야 어찌 됐든 국립발레단을 제외하곤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립무용단을 보유하고 있는 광주의 위상에 비추어 볼 때 광주여대의 ‘결정’은 안타까울 뿐이다. 그것도 현대공연예술의 허브가 될 아시아예술극장(국립 아시아 문화전당내)의 개관을 불과 1년 앞두고 말이다.

문득 2년 전 최태지 전 국립발레단장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강조했던 말이 떠오른다. “광주가 무향의 명성을 지켜가려면 공연장을 자주 찾아 무용수들에게 격려와 관심을 보내줘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종종 공연장을 찾아 지역의 춤꾼들에게 ‘댄싱 9’ 심사위원들 처럼 격려와 응원의 큐사인을 보내자. “아 유 레디? OK, GO.”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광주YMCA, 폴리Ⅱ ‘기억의 상자’ 시민들에 분양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갤러리를 분양합니다.’

광주YMCA는 오는 27일까지 광주 폴리Ⅱ 중 하나인 고석홍·김미희씨의 ‘기억의 상자’를 일반 시민들에게 분양한다.

주제는 ‘내게 의미 있는 무엇!’으로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진, 그림, 책, 격언, 기념품, 일기장, 필기구, 물품 등 기억의 상자(가로 38㎝, 세로 34㎝, 높이 29㎝)에 전시될 수 있는 크기의 물품이면 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광주폴리 홈페이지(www.gwangjufolly.org) 또는 광주YMCA 홈페이지(www.iym-c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광주YMCA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들은 9월4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문의 062-234-0071. /김경인기자kki@